

## 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## 온라인손보사, 자동차보험 판매 순항 중

□ 경기침체로 인한 보험시장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, 온라인 자동차보험 판매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됨.

- 주요 6개 온라인 전문 손해보험회사들의 FY08 자동차보험 총수입보험료가 작년 대비 8% 증가하는 등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규모는 10년 전에 비해 15배 이상 확대됨.
- 회사별로는 소니손보 538억엔(12.0% 증가), 미츠이다이렉트손보 293억엔(12.2% 증가), 약사손보 293억엔(12.7% 증가), 손포24 86억엔(17.7% 증가)을 기록하며 6개사 중 4개사의 수입보험료가 전년대비 10% 이상 증가함.

□ 일본 최대 손해보험회사인 도쿄해상이 본격적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하는 등 향후 일본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.

- 도쿄해상은 최근 NTT 파이낸스와 공동으로 온라인 보험회사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출함.

## 도쿄해상 신설 온라인자보사(イーデザイン損害保険株式会社) 개요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상호명   | - e-디자인손해보험주식회사(イーデザイン損害保険株式会社)  |
| 본점위치  | - 도쿄시 신주쿠구 니시신슈큐                 |
| 대표자   | - 히그레 노리타케(日暮則武)                 |
| 자본금   | - 67.5억엔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주구성  | - 도쿄해상홀딩스 85.01%, NTT파이낸스 14.99% |
| 임직원수  | - 6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영업개시일 | - 2009년 6월 13일                   |

자료 : 일본금융청 홈페이지([www.fsa.go.jp](http://www.fsa.go.jp)) 보도자료 참조

- 도쿄해상과 닛세이도와손보 등 주요 손해보험회사들이 조만간 오프라인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.6~3.0%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,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7~8%에 불과한 일본의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규모가 향후 영국의 30%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음.

(일본금융청 홈페이지, FujiSankei Business | 6/16)